

Fund Facts

<b>투자 목적</b>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며, 주식 투자시 재무적 기업평가 방식과 비재무적 기업평가 방식(그린산업/SRI)을 함께 활용하여 투자대상 종목에 선정·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b>운용개시일</b>	2009-04-20
<b>펀드 규모</b>	52 억원
<b>총보수</b>	■A1:1%선취+연1.60 ■C1:연2.20% ■C2:연2.05% ■C3:연1.90% ■C4:연1.70%■C4:연1.70%■Ce:연1.60%
<b>환매수수료</b>	A1-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90일, 이익금의 30% C1-90일미만 이익금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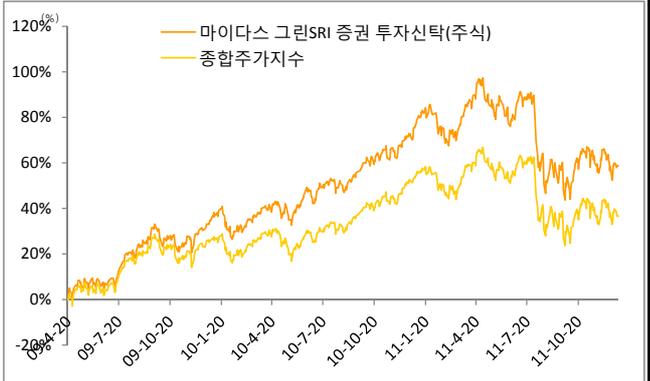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그린SRI증권투자신탁(주식)	-1.51%	3.36%	-13.61%	-9.52%	58.74%
종합주가지수	-1.18%	3.17%	-13.09%	-10.98%	37.38%
초과수익률	-0.33%	0.19%	-0.52%	1.47%	21.37%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9.04.17~2011.12.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2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1.51%였으며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1.18%를 기록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0.33%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성과가 양호하였던 한국전력, KT&G 등 경기 방어적 성격의 주식들과 고배당 주식들의 펀드내 편입 비중이 시장대비 낮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

12월 주식시장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조 지속과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월 초반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ECB(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 시작 등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가 우려가 지속되어 주요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김정일 사망에 따른 대북 리스크에도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주식 자산에서 채권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속적으로 업종내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과 종이목재, 건설, 음식료, 전기가스, 증권, 의약품 등 저배타 내수 업종 중심으로 상대성과가 양호하였으며, 은행, 운수장비, 운수창고, 금융, 화학, 기계, 철강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과 연말 배당락에 따른 통신업종이 부진하였습니다.

자산배분

12월 시장은 시장의 연말밸리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이탈리아의 소버린 리스크(국가 채무상환 관련 위험) 재 부각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말밸리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율을 높였지만 기대보다 부진한 시장흐름으로 인하여 부진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1월 시장은 부정적인 올해 초 경제전망과 1분기 중 지속 예정인 유로지역 주요국가들의 대규모 부채 만기연장을 앞두고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변동성 확대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식편입비율을 90% 초반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종목선택

주식편입비율의 80% 이상은 비재무적 요인평가 40%(그린산업/SRI)와 재무적 요인평가 60%가 결합된 그린SRI 유니버스로 구성되어 나머지는 당사 리서치를 통하여 선별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1 그린SRI유니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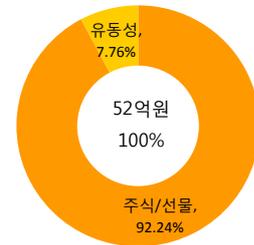
12월말 현재 그린SRI유니버스 투자비중은 주식투자액의 약 88%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 그린SRI유니버스 중에서는 제일모직, 롯데삼강, 한국가스공사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롯데쇼핑, 우리금융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삼성테크윈 등을 신규 편입하였으며 LG상사, 삼성카드, 삼성전기 등을 목표주가 도달에 따른 이익실현 및 수익추정의 부정적 변화를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2. 트레이딩포트폴리오

12월말 현재 주식투자 비중에서 그린SRI유니버스 미포함 주식은 약 12%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 LS산전, 이지바이오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CJ E&M, 삼양사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아이테스트, IHQ, 싸유메디칼 등을 신규 편입하였으며 한진, 하이마트 등을 목표주가 도달에 따른 이익실현 및 수익추정의 부정적 변화를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12.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1.10.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53.42%)

- |           |             |
|-----------|-------------|
| 1. 삼성전자   | 11. 롯데쇼핑    |
| 2. 현대차    | 12. 삼성물산    |
| 3. 현대모비스  | 13. SK텔레콤   |
| 4. 기아차    | 14. KT      |
| 5. 다음     | 15. SK이노베이션 |
| 6. LG손해보험 | 16. KB금융    |
| 7. LG화학   | 17. 하이닉스    |
| 8. 현대중공업  | 18. S-Oil   |
| 9. POSCO  | 19. 코리안리    |
| 10. NHN   | 20. 제일모직    |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 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지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